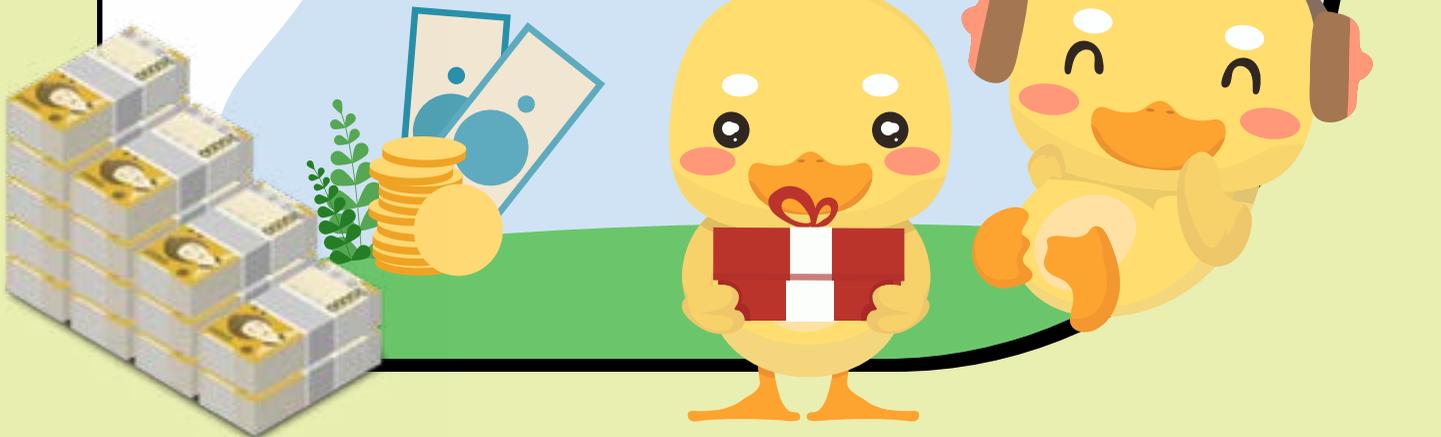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 VI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동물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차단 방역은 가축 질병이 없는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이면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 방역이다.

차단 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반석가금연구소의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 방역 매뉴얼을 연재해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차단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리사 세척과 소독 II

세척과 소독은 병원체들이 가축의 체내로 침투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통제하는 가장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차단 방역 조치이다.

오리사 내에 쌓이는 유기물질은 병원체를 지니고 있다가 농장의 내부나 외부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기물질은 질병 전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세척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유기물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농장이나 오리군에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유기물들을 제거한다.

소독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직접 처리하여 사멸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유기물에 의해 보호된 병원성 미생물들은 소독제에 의해 쉽게 사멸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잘 세척하고 소독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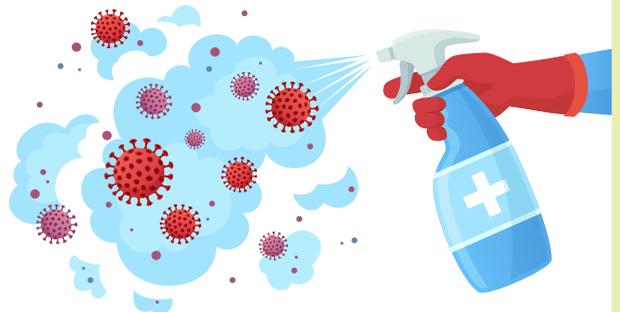
세척과 소독은 차단 방역의 필수요소로서 세척만 잘해도 병원성 미생물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독은 주로 세척 후 시행하거나, 세척이 불가능한 곳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며, 적절한 소독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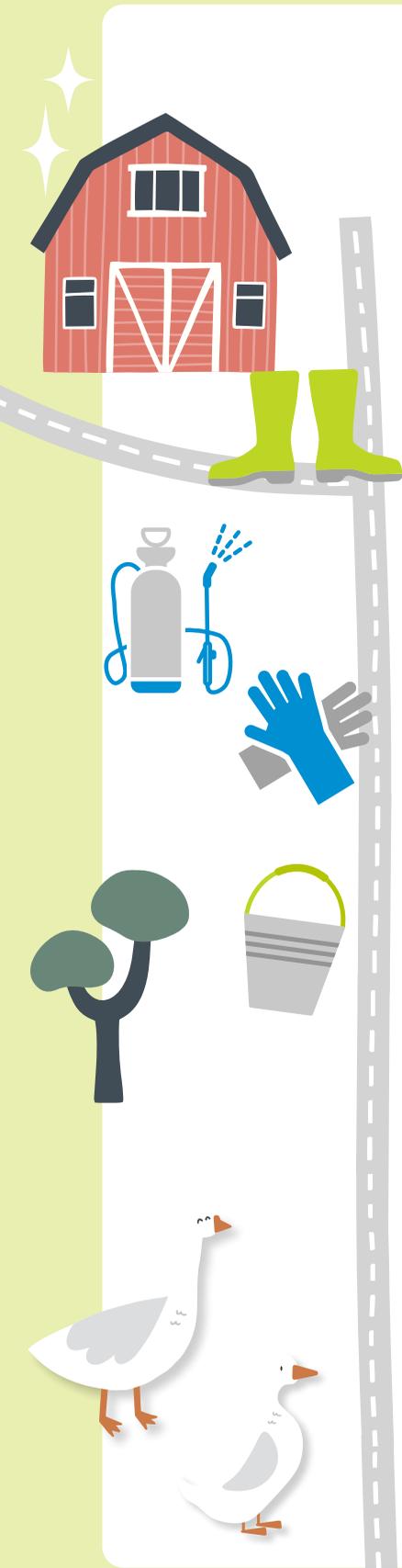
소독

소독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병원체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판되고 있는 소독제들은 효력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그 효과를 공인한 물질들을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오리사는 동별로 내부에 분무형 소독기를 두고 활용하는 것이 차단 방역 상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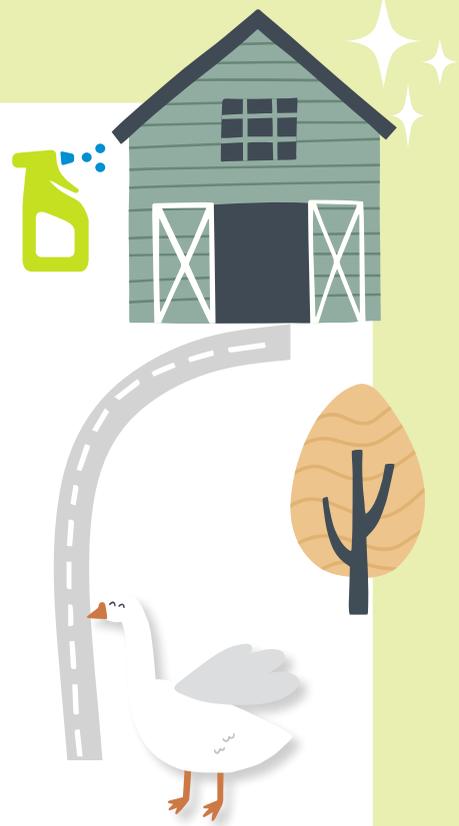


효과적인 오리사 소독방법

- 1 소독하는 작업자는 작업복 등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소독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작업복, 장갑, 마스크, 장화, 보안경, 앞치마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2 세척 후 남아있는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소독하도록 하며, 소독제는 유기물이 있어도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물과 소독제는 필요한 양을 잘 계산해 준비하여 작업 후 소독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놓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독력이 떨어지므로 사용 시 희석하여 사용해야 한다. 사용 후 원액은 뚜껑으로 밀폐한 뒤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3 소독제 희석액은 평당 1ℓ 정도를 사용해 표면을 흠뻑 적셔주어야만 효과가 있다. 또한, 천장과 벽을 함께 소독해야 하므로 필요한 소독제 희석액의 양은 바닥 면적의 2배 정도를 준비한다.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이 200평(660㎡)인 오리사의 경우 400ℓ의 희석액을 준비하면 된다.

*** 희석액 소요량 산출근거 :**
 $200 \text{ ℓ (바닥 면적 1평당 1 ℓ 소요)} \times 2(\text{천정과 벽면 고려}) = \text{희석액 400 ℓ}$
- 4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기된 사용기준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되, 소독제 원액을 곧바로 큰 물통에 혼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별도의 용기를 활용해 1차 희석을 마친 후 큰 물통에 혼합한다.
- 5 1차 희석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된 20ℓ 이상 용량의 양동이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1차 희석 요령은 먼저 양동이에 절반 정도 물을 채운 후 필요한 만큼의 소독제 원액이 용해될 때까지 충분히 저어준다. 이때 희석이 잘 안 된다면 1차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물을 40~60℃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 사용하면 좀 더 쉽게 희석할 수 있다.
- 6 1차 희석에서 소독제 원액이 어느 정도 용해되면 희석된 용액을 큰 물통에 부은 후 다시 충분히 저어준다. 희석이 잘 안 된 경우 분사기의 노즐이 막히거나 소독제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희석해 주는 것이 좋다.

- 7 두 가지 소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각각의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으며, 살균 및 소독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8 희석이 완료되면 분사 장비를 소독제와 연결한 후 압력을 저압으로 조절한 뒤, 오리사의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천장, 벽, 바닥의 순서로 소독을 실시한다.
- 9 소독이 완료되면 오리사에 사람이 출입하거나 외부에서 야생동물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소독액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 10 소독이 완료된 후에는 낙하 세균 테스트, 스탬프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사육유형별 적용 방안



축종별

종 오리

종오리 농장처럼 하나의 오리사에서 오랫동안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사육 중에도 오리사를 소독해야 하는 데, 이런 경우에는 소독제의 선택과 온·습도 관리, 소독 작업으로 인한 오리의 스트레스 등에 주의하여 소독해야 하며,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반드시 어린 오리에도 안전하다고 입증된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호흡기 질병 등이 문제가 되는 때라면 소독이 오히려 오리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② 소독 작업 시에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기계음으로 인해 오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리들에게 소독액이 직접 분사(특히 안개분무기의 경우)되어 오리의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육용오리

대대적인 소독은 출하하여 오리사가 비었을 때 대대적으로 세척한다.



사육형태별

평사사육인 경우에는 오리에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범위 내에서 오리를 서서히 한쪽으로 몰아가며 공간을 확보한 후 빈 공간을 소독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자료출처: 반석가금연구소